



“하루가 너무 짧아요”

전지훈련이 한창인 KIA선수단이 24일 오전 경남 남해 캠프 훈련장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남해=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용운·윤석민 내년 못 뛴다니 ‘답답’



남해 캠프를 가다

■ 마운드 전력 이상

신 경찰청 야구단 입단 거부 군 입대 고수
윤 아킬레스건 부상...수술 여부도 결정못해

“(신)용운이는 군대가고, (윤)석민이는 아프고...”

2008 시즌을 준비중인 KIA 마운드가 벌써부터 불안하다. 올 시즌 KIA 마운드를 이끌었던 1선발 윤석민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신용운하고 있고, 중간계투로 활약해 온 신용운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최근 경찰청 야구단의 입단 테스트를 마친 신용운은 구단측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을캠프에도 불참한 채 군 입대를 고수하고 있다.

올해 만 24살인 신용운은 오는 11월 경찰청 야구단으로 입대하지 않고 내년 시즌에 들어갈 경우 시즌 도중 입대 영장이 나오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 시즌 40경기(79이닝)를 던져 8승 10패(평균

자책점 4.73)로 든든한 허리역할을 해온 신용운이 내년 시즌 전력에서 이탈하면 KIA의 마운드 운용에도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구단측도 한 시즌을 더 잔류하는 방안을 모색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

또 ‘에이스’ 윤석민은 고교시절부터 앓아오던 고질적인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이 왼쪽 발목으로까지 번지면서 재활군에 편성됐다.

윤석민은 올 시즌 평균 자책점 3.78(162이닝)로 잘 던지고도 7승 18패로 최다패의 주인공이 된 비운의 투수.

시즌 후반기에는 아킬레스건 부상마저 겹쳐 후반기 내내 기본적인 러닝 훈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결국 투구시 왼쪽 발목에 더 많은 힘을 주

다보니 왼쪽 아킬레스건마저 부상을 입게 된 것이다.

시즌이 끝난 뒤 수술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 봤지만, 아킬레스건 수술은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선수 생명은 물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갈 수도 있어 어마저마 포기할 상태다.

조범현 KIA 감독도 윤석민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조 감독은 “(신)용운이가 빠진 자리는 다음달 군 제대를 하는 유동훈으로 대체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윤)석민이다”며 “현재로서는 내년 시즌 1군 잔류도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남해=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게으른 천재는 필요없다...땀 흘린 만큼 기회줄 터”

■ 조범현 감독 인터뷰

“이종범 꼭 필요한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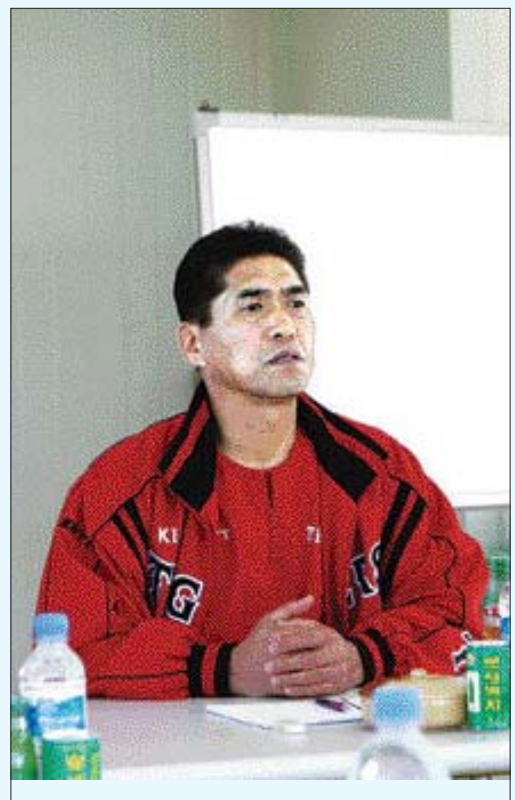
“게으른 천재는 필요없다. 땀 흘린 만큼 기회를 더 주겠다.”

경남 남해캠프에서 마무리 훈련 4일째에 돌입한 조범현 KIA 감독은 24일 “열심히 하는 선수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다. 내년 시즌엔 성실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성실성을 훈련의 화두로 삼았다.

조 감독은 “올 시즌 KIA는 선수들의 잦은 부상으로 선발투수는 물론 팀 타순마저 무너질 정도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면서 “내년 시즌은 용병으로 마운드를 보강할 생각이지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조 감독은 마운드 전력에 대해서는 “한기주를 제외하곤 1군 선수로 낙점된 이는 아무도 없다”며 “1.5군 급에도 좋은 투수들이 많다. 모든 투수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쟁구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감독은 “일단 훈련기간동안 전병두 등을 포함한 선발진 6~7명을 구성하고, 용병 투수도 영입할



24일 경남 남해 캠프내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범현 KIA감독이 향후 훈련 전망 및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남해=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계획이다. 스코비의 재계약 여부는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 감독은 야수진에 대해서는 “내야수 1명을 보강할 생각이다. 3루를 맡고 있는 이현근이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김중국도 유격수보다는 2루수를 맡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3루수를 김주형에게 맡기기에 부담스럽다. 내야수는 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듯 하다”고 강조했다.

조 감독은 최고참인 이종범의 내년 시즌 활용에 대해선 “이종범 선수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깊은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다”며 “이종범은 경기는 물론 경기 외적인 면에서도 구단에 꼭 필요한 존재다. 2008 시즌에도 이종범과 함께 할 계획”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명포수 조련사”라는 명성답게 포수 김상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조 감독은 “(김)상훈이를 처음 만났을 때 볼 배합 등 포수로서 갖춰야할 기본 지식이 많이 부족했는데, 시즌 막판으로 가면서 여러면에서 기량이 급상승했다. 자신감을 갖다보니 배팅 감각도 함께 좋아졌다”며 “내년 시즌엔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남해=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 <잠실·오후 6시>



두산 안방서 굳히기



SK 대반격 신호탄

‘인천 상륙작전’에서 대성공을 거둔 두산 베어스가 25일부터 홈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5차전에서 우승 굳히기에 들어간다.

두산은 인천에서 치른 1~2차전에서 적자의 불리함을 투지와 투혼으로 극복하며 2연승, 대망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2승만을 남겼다.

반면 ‘천적’ 다니엘 리오스에게 막히고 이대수 ‘부메랑’을 정통으로 맞은 SK는 잠실 원정에서 대반격을 이룬 뒤 다시 인천으로 시리즈를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역대 한국시리즈 데이터를 살펴보면 1차전 승리 팀의 우승 확률은 83.3%나 됐고, 1,2차전을 모두 이긴 팀이 우승하지 못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기록으로만 따지면 두산은 우승이 가시화된 반면 SK는 기적을 연출해야 할 처지다.

두산은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는 속담처럼 매 경기 흐름을 뒤집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면서 SK를 압도했다.

1차전에서는 이종욱의 홈캐드, 고영민의 그물망 수비가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고 2차전에서는 결정적인 순간 나온 이대수의 다이빙 캐치와 결승타, 홍성흔의 자발적인 스리 번트, ‘아기곰’ 임태훈의 환상투가 2연승의 노릇들을 놓았다.

이에 반해 SK는 1차전에서 경기 감각을 찾지 못한

데다 ‘비룡 킬러’ 리오스에게 또 다시 약한 모습을 보였다. 2차전에서는 김성근 감독의 투수 교체 실패와 후속타 불발이 겹치면서 정규 시즌 1위 다운 조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두산이 유리한 상황이나 3~5차전 변수는 분명 존재한다. 두산은 안경현이 부상으로 이탈한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오스가 등판하는 4차전을 제외하고 3.5차전에서 승리를 따낼 수 있느냐는 것으로 요약된다.

1루수 안경현의 빈 자리는 정원석 또는 최준석이 나설 예정인데 수비 공백을 메우는 게 급선무다.

2차전에서 몇 번 해법에 자신감을 얻은 SK는 타격감을 잠실밭에서 회복할 수 있느냐에 집중된다. 응집력만 되찾으면 리오스보다 떨어지는 3.5차전 두산 선발을 상대로 반전의 기를 마련할 수 있다.

김성근 감독은 1~2차전에서 톨타자로 나섰으나 8타수 무안타로 극히 부진한 정근우를 교체하는 등 타순 변화로 톨타구를 찾게 계획.

3차전 선발이 예상되는 마이크 로마노(SK)와 김명재(두산)는 상대 전적에서 나란히 1패씩에 방어율 5점대, 8점대로 좋지 않아 화끈한 타격적인 예상된다. 각각 굳히기와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3차전은 이번 시리즈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두산 ‘4마리 토끼’ 쫓는다

- ① 한국시리즈 우승
- ② 한국시리즈 MVP
- ③ 올 시즌 MVP
- ④ 올 시즌 신인왕

각별한 의미가 있다.

8년 만에 20승 고지를 정복한 에이스 다니엘 리오스는 22승5패, 평균자책점 2.07의 빼어난 성적으로 MVP 후보에 오른 다른 4명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아기 곰’ 임태훈도 데뷔 첫 해 대박에 불펜을 깨치고 7승3패 1세이브, 홀드 부문 2위에 해당하는 20홀드를 올려 신인왕에 가장 근접한 선수.

31일 프로야구 기자단 투표 결과를 까봐야 할 수 있으나 성적에서 이들을 필적할 후보가 없다. 한국시리즈 우승 프리미엄까지 더해진다면 두산이 MVP 및 신인왕을 석권하는 건 현실시되고 있다.

이럴 경우 두산은 올해 한국프로야구를 지배한 명실상부한 최강자로 우뚝 서게 된다. 역대 MVP와 신인왕을 한 팀이 독식한 사례는 1985년 해태(김성환-이순철), 1993년 삼성(김성래-양준혁) 그리고 사상 첫 동시 수상을 이룬 한화의 류현진 뿐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을바람을 타며...

24일 한강 난지지구에서 열린 제21회 대통령기 요트 대회에서 호비-16요트들이 바람을 받으며 한강을 기르고 있다. /연합뉴스